

작아지는 경차시장

8월 누적 판매 전년비 9.9% 감소...5년째 내리막
주행성능·안전성 떨어지고 연비 눈길 못끌어
대형차 선호 추세...소형 세단·SUV로 수요 이동

한때 '국민차'라는 평기도 나왔던 경차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8월까지 팔린 경차는 8만3962대로, 지난해 같은기간(9만3163대)에 걸췌 9.9% 감소했다.

8월 한 달 판매량도 1만785대로 1년 전 같은 달 1만1299대에 비해 4.5% 줄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현재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차는 기아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코, 르노삼성자동차의 트뤼지 등 모두 4종이다.

기아차 모닝의 경우 지난달 3829대가 팔려 지난해 9월 판매량(5595대)보다 1766대나 감소했다. 올해 누적 판매량도 43782대로, 지난해 1-9월 판매량(5만3588대)에 비해 9806대나 줄었다.

한국GM의 스파코도 올 들어 9월 까지 2만6920대가 팔리는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3만5592대)보다 무려 24.4%나 급감했다.

경차는 지난 2012년의 경우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기(20만2844대) 했으나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차 판매량은 ▲2014년 18만6702대 ▲2015년 17만3418대 ▲2016년 17만3008대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엔 13만8895대까지 떨어진 상태

다. 올해 연간 판매량도 작년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각종 세제상 혜택 또는 주차·통행료 할인 등이 있어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점 등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경차 인기가 갈수록 식고 있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주행성능이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기대만큼 연비가 높지 않은 점 등에서 예전만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자동차업계 분석이다.

경차 수요가 소형 세단이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이동하고 있는 점에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도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 새 코나, 스토닉, 티볼리 등 소형 SUV 시장이 열리면서 경차 수요가 이동해 갔다는 것이다. 소형 SUV 판매량은 지난 2013년 1만1998대에서 지난해에는 14만7429대로 증가했고 중형차 대신, 대형차의 인기가 올라가는 등 소비자들의 경제 수준 향상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경차 수요가 소형 세단이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이동하면서 경차 수요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더 강해진 '모하비'

기아차 2019년형 출시...안전성 강화
원격제어 시스템 UVO 5년 무상 사용
출시기념 전국 리조트 숙박권 이벤트



'대형 SUV 전통의 강자'로 꼽히는 기아차 모하비의 '2019년형'이 출시됐다.

2019년형 모하비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인 '키카오 i'(아이)가 적용돼 내비게이션의 검색 편의성과 정확도가 향상됐다.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안내 등이 가능한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UVO'(유보)의 무상 사용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주행 중 후방영상 디스플레이와 세차장 진입지원 가이드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 단계 개선됐고 기존 최상위 트림인 '프레지던트'에만 기본 적용됐던 상시 4WD 시스템과 동승석 워크인&통풍시트가 중간 트림인 'VIP' 트림에서도 각각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으로 운영된다.

차량에 탑재된 디젤 3.0 엔진은 강화된 유로 6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발돼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성을 높였다.

판매가격은 ▲노블레스 4138만원 ▲VIP 4432만원 ▲프레지던트 4805만원이다.

한편, 기아차는 2019년형 모하비 출시를 기념해 'OUT OF CITY 가을여행' 이벤트를 열고 10월 모하비 출고 고객(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전국 유명리조트 1박 숙박권을 증정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GM 'R&D 별도법인 분리' 갈등

사측 "디자인센터 지위 격상"...노조 "구조조정 발판" 반발

한국지엠(GM)이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부문을 떼어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작업을 강행할 조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은 반대했으나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한국GM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GM 측 7명, 산업은행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측은 연구개발 법인 분리 목적에 대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중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품의 디자인 및 차량 개발 업무를 가져와 디자인센터의 지위를 격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 개발을 주도하려면 GM 글로벌 임원들이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본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

도록 연구개발 법인을 별도로 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GM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법인을 쪼갬 뒤 한국GM을 GM의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시켜 신설 법인만 남겨놓고 공장은 장기적으로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법인 분할안이 실현되려면 주총을 거쳐 통과돼야 하지만, 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상태여서 실제 주총이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기아차 '모닝'

3천만원 깎아준 아우디 단숨에 판매 1위

지난달 점유율 13.8%...벤츠 누적 판매 부동의 1위

팍팍 깎아줬더니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아우디의 A40 TFSI 차량 얘기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달 2376대가 팔리며 13.8%의 점유율로 브랜드별 등록대수 1위를 차지했다. 아우디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으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년 만인 지난 3월 판매를 재개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특히 아우디 A3 40 TFSI는 지난달에만 2247대가 팔리며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올랐다.

비결은 할인이다. 아우디가 저공해차 의무 판매제를 지키기 위해 40%대 할인 판매해 물량을 쏜 게 한몫을 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연간 45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라 연간 약 9.5%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판매해야 한다. 원래 소비자가격이 A3 40 TFSI가 3950만원, A3 40 TFSI 프리미엄은 4350만원 정도인 차량에 대해 40% 할인율을 적용하면 각각 2370만원, 2610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이번달에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매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한편, 올 들어 누적 판매량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5만746대가 팔려 25.75%의 점유율을 기록,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재규어랜드로버 5종 리콜

재규어 XF,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스포츠 등 5개 차종 1만6000여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5개 차종 1만6022대에서 엔진 이상이 발견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은 2010~2016년 생산된 차량으로, ▲재규어 XF 1369대 ▲재규어 XJ 1630대 ▲디스커버리 4 8471대 ▲레인지로버 205대 ▲레인지로버스포츠 4347대 등이다. 이들 차량은 장착된 3.0 디젤엔진의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차량은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불량 판정을 받으면 관련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 받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